

조국·정경심, 2심으로... 1심 실형 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입시비리·뇌물수수·감찰무마 혐의 조국 부부,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6일 항소장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검찰은 아직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근·장용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검찰 무마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이날 항소장을 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일주일인 10일까지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함께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세 갈래로 나뉘었다.

정 전 교수도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

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제기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급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을 제외한 정 전 교수 혐의만을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가 공모해 지위를 남용해 유재수 관련 비위 감찰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증거에 대한 조



사가 완료돼 더 이상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이슬 기자



부릉 지점장들의 피켓시위

창업자 유정범 메쉬코리아 의장을 지지하는 '부릉'의 지점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hy 본사 앞에 모여 '메쉬코리아 헬값 매각'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분향소 기습 설치' 이태원 유가족 시청 진입 시도하다 3명 병원 이송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이태원 유가족 및 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찰 등과 대치했다. 서울시청으로 들어가려다 저지당한 유가족 3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관계자 15여명은 6일 오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현관 앞에 주저앉아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故이지현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서울시청 현관 앞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라. 나올 때까지 안 가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 및 유가족 등 관계자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측에게 저지를 당하자, 오 시장에게 사과를 하라며 시청으로 출입하려했지만 서울시 및 경찰에 저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故최민석씨, 故박가영, 故정주희양의 어머니들이 뇌진탕 및 실신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씨는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 시장이) 밥을 먹으러 가냐"고 소리쳤다.

다른 관계자들도 "빨리 나오라고 해라", "지금 당장 나와", "오세훈 당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서울시청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양한웅 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은 "희생자 어머니 한 분이 영정이 너무 추위 보인다고 난로를 갖고 들어가려 했는데 경찰과 서울시가 막았다. 그 어머니는 원하고 분통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이거 하나 빼앗아가는 오 시장 절대 못 믿는다. 사퇴하고 사과하라는 의미에서 시청 앞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낮 12시30분께 시청 현관 앞 농성을 풀고 분향소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공원 합동분향소에서 서울광장까지 추모 행진을 하던 중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내 추모공간 설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윤복남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시 측에 세종로공원에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서울시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후 종로경찰서에 세종로공원에 대한 시설물 보호 요청을 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세종로공원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해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비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재환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